

# 사회적 위협 인식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

황정미\*\*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분석 결과 |
| II.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 V. 결론     |
| III. 연구방법론 및 자료 |           |

## | 논문요약 |

이 연구는 남한 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이 위협 인식(perceived threat)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지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2007-2015년 통일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 위협 인식이 높아질수록 외집단이자 사회적 소수자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확대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첫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리감은 남한 주민들이 인지하는 사회적 위협의 수준이 높을수록 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으로 인한 집합적 위협과 더불어 남한의 사회환경 위협, 즉 빈부격차나 실업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할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줄어든다. 셋째, 20대 연령층에 대한 분석에서 인지된 위협의 효과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2013년 이후 청년들은 실업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을 더욱 소원하게 느끼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과도한 경쟁과 취업 위기에 직면한 청년들의 구조화된 무력감이 사회적 소수자에 배타적인 태도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수용뿐 아니라 앞으로 통일 전망 및 통일 준비 과정에서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의미가 있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A00001).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HK연구교수.

▪ 주제어: 북한이탈주민, 사회적 거리감, 위협 인식, 통일 인식, 사회통합

## I. 서론

분단 이후 70년이 경과하는 동안 한국인들이 통일, 북한, 그리고 북한 사람을 보는 시선은 역동적으로 변화해 왔다. 남한 사람들은 북한체제와 주민들에 대해 ‘동포’이자 ‘적’이라는 이중적이고도 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한반도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은 헌법상 국민으로 ‘우리’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 형제이자 이웃이지만,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가장 이질적이고 위험한 존재이기도 하다. 또한 북한체제 또는 북한 주민에 대해 어느 정도 친밀감 혹은 거리감을 느끼는가 여부는 한국인의 이념적 태도 내지 정체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간주되기도 한다(이내영 2011, 34-35).

최근 북한과 통일,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태도를 조사한 자료들이 축적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흥미롭게도 경험적 조사 자료를 분석한 연구들에서 몇 가지 공통된 추세가 나타난다. 첫째, 최근 들어 남한 시민들이 북한을 형제/이웃으로 느끼기보다는 남 또는 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이내영 2011, 38). 또한 시계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을 우리와 함께 협력할 대상으로 보는 응답은 2007년 56.6%에서 2015년 35.2%로 감소하였다(박명규 외 2016, 77). 북한을 민족 동질성의 차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서로 간의 이질성 및 격차를 더 민감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둘째, 북한 주민이나 북한 동포에 대한 친밀감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동포집단과 비교할 때 북한에 살고 있는 동포에 대한 친밀감은 재미동포, 재일동포, 재중(조선족)동포에 비해 더 낮은 수준이다(윤인진 2011, 176). 셋째, 남한 시민 내부의 인식 차이가 나타나며 특히 세대별 태도의 격차가 커지는 추세이다. 청년층은 장년이나 노년층에 비해 북한체제와 북한이탈주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나타난다.

또한 20대 청년층에서는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태도가 다른 연령층보다 낮은 편이다(박명규 외 2016; 박종철 외 2015).

이러한 경험적 연구 결과는 단편적인 태도의 변화를 보여주지만, 이를 일반화하여 전체적인 남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한 예로, 북한에 대한 인식은 정치적 이념 성향이나 정당 선호도에 따라 좌우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한 인식은 매우 복합적인 가치로 구성되며, 다양한 환경의 변화 - 대미관계, 대중관계, 국내 정책의 변화 등 - 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치 성향이 북한 인식을 좌우하는지 혹은 그 역의 관계가 성립되는지는 여전히 논쟁적이다(박종철 외 2015, 202). 다른 한편, 냉전 시대와 탈냉전 시대를 살아온 경험에 따라, 즉 세대나 연령별 코호트에 따라 상이한 태도가 나타난다는 주장도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세대 내에도 통일의식의 분화가 존재하므로 세대별 격차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자칫 현실과 동떨어진 해석이 될 수도 있다(김병조 2015, 146).

이처럼 다양한 논의 가운데 통일이나 북한 문제를 ‘국가’ 수준에서 보는 것과 ‘개인’의 입장에서 인지하는 데에는 일정한 격차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통일에 대한 의식조사를 실시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통일이 ‘국가’에 이익이 된다는 응답과 ‘개인’에 이익이 된다는 응답 사이에는 상당한 편차가 있고, 이러한 격차는 지난 9년간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다(박명규 외, 2016). 통일이 가져올 국가적 편익은 비교적 높게 평가하는 반면, 개인적 편익은 이보다 상당히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한편 통일연구원에서 실시한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남한 시민들은 통일의 국가 편익에 비해 개인적 편익은 상대적으로 그다지 크지 않다고 인식한다(박종철 외, 2015).

통일이 국가와 민족이라는 집합적 차원에서 중요한 일이지만 ‘나’의 일상적 삶이나 개인 이익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중적 인식은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통일의 편익이 남한 사람들 모두에게 골고루 분배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통일에 수반하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주도하고 관리해야 하는 국가에 대한 불신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 “통일 편익에 대한 양자의 격차는 통일 및 대북정책으로 인해

국가와 사회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박명규 외 2016, 53-54, 강조-인용자). 이러한 갈등은 비단 통일의 편익뿐 아니라 대북 지원과 남북관계,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증가 및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한 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통일, 대북정책,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문제들은 이미 남한 사회의 정치·사회·경제적 균열 지점들과 교차하면서 우리 내부에 다양하게 분화된 입장과 담론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대북 정책 및 군사·정치 요인과는 일정하게 구별되는 ‘사회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남한 주민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북한이탈주민을 보는 시선은 북한 및 통일에 관한 태도와 일정하게 구분되면서도 또한 상호 연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통일에 관심이 많고 북한에 우호적일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포용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북한체제 및 북한 정권에 대한 태도와 북한 주민을 보는 시선은 동일하지 않을 것이다. 통일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적극적 태도 또한 어떤 체제로의 통일을 선호하는지에 그 의미가 달라진다. 이처럼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은 매우 복합적 가치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인식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 분명히 분석적으로 구분되어야 하지만 다른 한편 서로 연관되는 측면도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 주민들의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심리학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와 ‘위협 인식(perceived threat)’ 개념을 활용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위협 인식 이론은 일반적으로 사회 갈등이 집단 간 경쟁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전제한다. 이 입장에 따르면, 사회적 경쟁이 심화될수록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외집단(outgroup, 이민자나 소수자)이 기존의 이익을 위협하고 사회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라는 불안감 내지 적대적 감정을 갖게 된다. 물론 객관적 현실의 위협과 이러한 위협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북한 주민은 미래의 통일된 국가에서 함께 살아갈 헌법상의 국민이다. 그러나 70년 이상 고착된 분단 상황으로 사회문화적 이질감이 커졌고, 남한 시민들의 생활세계에서 북한 사람은 동질감보다는 이질감이 큰 외집단으로 인지될 수밖에 없다. 북한이탈주민은 이미

남한 사회 내부로 들어와 생활하고 있는 현실적 외집단이라면, 북한 거주 주민은 미래에 함께 살아갈 잠재적 외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남한 시민들이 인지하는 사회적 위협의 수준이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다. 위협 인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네 가지 차원, 즉 개인적 위협, 북한이탈주민으로 인한 집합적 위협, 남한 사회의 경쟁 심화로 인한 위협, 그리고 통일 이후의 사회적 위협으로 구분한다. 최근 많은 연구에서 드러난 세대별 의견 차이나 청년세대의 특성 또한 위협 인식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20대 청년층이 기성세대에 비해 통일에 무관심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면, 오늘날 청년들이 사회적 양극화와 일자리 부족으로 이전 세대보다 훨씬 극심한 경쟁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도 중요한 원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위협 인식이라는 새로운 변인을 주목하는 이유는,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태도에는 통일이나 북한 문제 등 외적인 요인뿐 아니라 남한 사회 내부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우리 사회에는 양극화, 계층 및 세대별 분화, 새로운 격차를 둘러싼 문화적 갈등 및 균열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고도성장이 미래의 희망을 약속하는 시대가 점차 저물고 이제 개인의 삶에서 느끼는 사회적 위협과 불안, 그리고 존재론적 안전(ontological security)에 대한 우려들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내의 타자, 외집단, 소수자 등을 바라보는 태도에 이러한 위협 인식이 일정하게 투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틀에서 20대 청년층의 위협 인식도 분석해 볼 것이다.

이하 논문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기존 연구 검토를 통해 분석틀을 제시하고, 3장에서는 자료 및 연구방법론을 서술한다. 4장에서는 회귀 분석을 통해 인지된 위협 변수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며, 20대 응답자를 별도로 분석하고 그 특징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및 통일 인식을 사회적 차원에서 연구해야 할 필요성 및 다양한 함의들을 논의한다.

## II.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 1. 기존 연구 검토

####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

북한을 떠나 남한에서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2만 9천여 명에 이른다.<sup>1)</sup> 이들 중 상당수는 위험을 무릅쓴 탈출과 장기간의 제3국 생활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쳐 남한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들은 남한에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고 취업 등 경제활동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sup>2)</sup>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시선은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매우 복잡적이다. 단순화하여 설명한다면 이들을 국민, 이주민, 또는 동포로 보는 세 가지 시선들이 때로는 엇갈리면서 교차하고 있다(황정미 2015a). 첫째, 북한이탈주민은 헌법상 우리 영토인 한반도에 거주해 왔고 또한 장차 통일 국가의 주민이 될 사람이라는 점에서 (다른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엄연한 국민의 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들은 북한 출신의 남한 주민이라는 특별하고도 과도적인 위치에 있다. 70년간 적대관계에 있었던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경계와 감시의 대상이지만, 다른 한편 남북 간 이질화를 완화하고

1) 통일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3월 기준 잠정 집계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9,137명이다.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40>. (2016년 4월 29일 검색)

2) 북한이탈주민 4명 중 1명은 생계급여 수급자이며, 고용률은 54.6%에 불과하다(2015년 기준). 탈북자의 생계급여율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체적인 연도별 추이는 아래의 표에 나타나 있다.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3099>. (2016년 4월 29일 검색)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생계급여 수급율	63.5	54.8	54.9	51.3	46.7	40.8	35	32.3	25.3
경제활동 참가율	47.9	49.6	48.6	42.6	56.5	54.1	56.9	56.6	59.4
고용률	36.9	44.9	41.9	38.7	49.7	50	51.4	53.1	54.6
실업률	22.9	9.5	13.7	9.2	12.1	7.5	9.7	6.2	4.8

통일에 기여하는 매개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둘째, 자신의 출신지를 떠나 경제체제나 문화가 상이한 새로운 사회에 정착해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이주민 또는 난민과 유사한 위치에 있다.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 주류사회로부터의 배제 등에 이들도 마찬가지로 노출된다. 최근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이미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선 가운데, 북한이탈주민은 적어도 수적인 면에서는 이주민 중에서도 소수자 집단이다.

세 번째로, 북한이탈주민은 같은 민족이자 동포의 일원이다. 동족 의식은 이들을 포용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지만, 한국인들의 민족 인식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전 세계에 퍼져있는 한민족들은 ‘동포’라는 포괄적인 명칭에도 불구하고 이주 시기나 거주 지역에 따라 미묘하게 구분되며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 같은 동포이지만 일종의 동심원적 위계(a concentric hierarchy)를 형성하며 분화되고 있는 것이다(Lee 2012). 전지구화의 흐름 속에서 국외 거주 한민족과 한인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그와 동시에 한민족 내부의 차이가 새롭게 부각된다. ‘피를 나눈’ 동포들을 널리 포용하는 포괄적 민족정체성보다는, 남한 출신 주민을 중심으로 한국인을 정의하는 새로운 정체성과 ‘대한민국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경향도 나타난다(강원택 2006; 2011).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남한 사람들의 친근감 혹은 거리감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기존 연구들은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하는 분석틀을 구성한다. 주로 민족정체성, 다문화 수용성, 북한 및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 여부, 그리고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 등 경제적 요인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가를 검증하고 있다. 먼저 권수현·송영훈(2015)의 연구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의 시계열적 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민족정체성은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던 반면, 경제적 요인의 경우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탈북자에 대한 거리감이 더 커지고, 가구 소득이 낮으면 거리감은 줄어들었다. 접촉 변인, 즉 북한 사람이나 북한 문화와의 접촉 경험이 있는 경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더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접촉이 편견

을 줄일 수 있다면 매우 의미 있는 결과이지만 그러나 이를 확대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남북협력의 통로가 장기간 실질적으로 단절된 상태에서 북한, 북한 사람, 북한 문화와 직접 접촉을 경험한 사람은 응답자 중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편 동아시아연구원(EAI)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에서 실시한 국가정체성 조사 자료를 분석한 손애리·이내영(2012)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과 국가정체성 요인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일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수용성이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높아진다. 한편 국가정체성은 시민적(civic) 차원과 민족적(ethnic) 차원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즉, 시민적 정체성이 강하면 북한이탈주민을 친근하게 수용하는 반면, 민족 자긍심은 오히려 반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태도가 강화되었지만 경제적 이해관계의 영향력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통일연구원의 남북통합 국민의식조사(박종철 외 2015)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국민적 자긍심이 높은 경우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소개한 분석 결과와는 달리, 이 연구는 국민으로서 긍지가 높을 경우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같은 민족이라는 유대감을 더 강하게 느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경제 상황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가 낮은 집단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조금 줄어들며 그 내부의 편차도 적다(박종철 외 2015, 172-176). 다만 이는 인과적 분석이 아닌 기술통계 수준의 분석이므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다문화 수용성은 비교적 일관된 영향을 보이지만, 그 외 민족자긍심이나 국민정체성, 그리고 경제적 요인에 따라 남한 시민들이 북한이탈주민을 친근하게 혹은 적대적으로 느끼는 태도가 어느 정도 달라지는지 일관된 결과를 얻기는 어렵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다루는 기존 연구들은 주로 서구에서 오랫동안 검증되어 온 이민자 연구의 분석틀을 응용하고 있다. 이민자와 소수자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편견을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경제적 접근과 비경제적 접근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권수현·송영훈 2015, 127).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현실갈등이론(Realistic Conflict Theory: RCT)과 사회정체성이론(Social Identity Theory)을 구분하는 논리와 동일하다(Coenders et. al. 2003, 8-9; 황정미 외 2007). 현실갈등이론은 편견이 형성되고 확대되는 경제적 원인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초점을 두는 반면, 사회정체성이론은 외집단을 경원시하는 문화적 규범이나 정체성 요인 때문에 이민자를 배제하는 태도가 강화된다고 설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실경쟁이론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높고 화이트칼라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이민자와 노동시장에서 직접 경쟁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비교적 관용적 태도를 보인다. 사회정체성이론은 일반적으로 민족 또는 국가정체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민자를 좀 더 부정적으로 바라본다고 설명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현실갈등이론 또는 사회정체성이론 중 어느 한쪽이 옳다는 식의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우선 현실갈등이론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변수는 영향이 없거나, 혹은 소득이 낮은 집단이 북한이탈주민을 노동시장 내의 경쟁 대상으로 여겨 배척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대적인 친근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반면 사회정체성이론의 경우, 다문화 수용성이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증대한다는 점은 일치된 결과이지만 민족자긍심이나 국가 정체성의 영향은 일관되지 않다. 이처럼 기존 연구에 내포된 모호하고 모순된 결론과 차별화된, 보다 새로운 분석틀을 시도하기 위해 이 연구는 ‘위협 인식(perceived threat)’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뒤의 3절에서 상술한다.

## (2) 북한·통일 인식에서 연령별 차이와 세대 격차

앞서 언급하였듯이 최근의 연구들은 연령 집단 혹은 세대에 따라 북한 및 통일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또한 20대 연령층에서 더 멀게 나타난다. 2015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의 통일의식조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동네 이웃, 직장동료,

사업 동반자, 결혼상대로 각각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질문하여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20대의 젊은 응답자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네 가지 항목 모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관계 맺기를 좀 더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정미 2015a).

한편 김병조(2015)는 통일 인식의 세대별 차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그는 연구에서 세대는 단순한 연령집단과 구분되는 개념이며, 비슷한 시기에 동일 문화권에서 태어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동시기 출생 집단(birth cohort)으로 정의된다. 통일 및 남북관계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기초로 하여 체제경쟁세대(1941-1960년 출생), 민주화통일세대(1961-70년 출생), 탈냉전통일세대(1971-80년 출생), 그리고 통일준비세대(1981-1995년 출생)의 네 세대를 구분한다. 가장 젊은 세대인 통일준비세대의 응답을 보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통일에 관심이 없으며 (분단 상태인) 현재에 만족한다는 인식이 다른 세대보다 두드러진다. 김병조의 연구는 인과적 설명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장점이 있다. 첫째, 1981년 이후 출생한 통일준비세대가 통일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지 않는 것은 이들의 청소년기 이후 경험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고도성장이 멈춘 사회에서 이들은 미래의 통일보다는 현재의 생존을 더 절박하게 고민해야 하는 입장이다. 둘째, 통일 인식에서 세대별 차이가 나타나지만, 모든 차이를 세대로 환원하는 것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같은 세대 내에서도 인식의 분화가 존재하며 특히 경제적 계층이나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김병조 2015).

이러한 연구들은 연령별로 사회적 위협을 인지하는 태도에서 차이가 있고, 이것이 다시 북한이탈주민이나 통일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청년들은 높은 대학진학률에도 불구하고 학업에서 취업으로의 이행에서 난관에 직면해 있으며, 청년실업률도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이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위협감이 커지고 있다면,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외집단, 그리고 통일에 수반하는 예측 불가능한 사회변동을 개인적인 시각에서 위협 요소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청년층이 이러한 사회적 위협을 인지하는 배경에는 통일과 관련된 역

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세대’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성년이행 기라는 생애주기 상의 위치로 인해 비슷한 위기감에 직면해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취업과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에 해당하는 20대 연령층은 점차 심화되는 취업 경쟁에서 불안감을 느끼며, 북한이탈주민이나 이민자에 대한 이들의 태도는 객관적인 위협뿐 아니라 ‘인지된’ 위협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2. 이민자에 대한 태도와 ‘위협 인식(perceived threat)’

위협 인식 개념은 일반적으로 집단 간 경쟁이론(intergroup competition theory)을 전제한다(Scheepers 2002; Quillian 1995; Schlueter et. al. 2013). 한 사회의 다수자 집단은 이민자 등 소수자 집단이 증가할수록 기존의 이해관계가 침해받을 것이라는 위협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집단 위협, 혹은 집단 간 관계에서 느끼는 위협은 그 내용에 따라 경제적 위협과 문화적 위협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Schleuter et. al. 2013, 671). 경제적 위협은 양질의 일자리, 복지국가의 정책 지원 등 가치 있는 재화들을 놓고 벌어지는 집단 간 경쟁과 관련되어 있다. 문화적 위협은 대다수 사회구성원들과는 사뭇 다른 도덕, 규범, 가치를 신봉하는 이민자집단이 기존의 문화적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말한다.

현실갈등이론은 경제적 위협을 강조한다. 이민자나 소수자에 대한 편견은 객관적인 경제적 근거를 갖고 있다. 즉, 다수자와 소수자 집단 간의 경제적 경쟁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Polavieja 2016, 2). 현실적 경쟁에는 교육과 복지서비스 등 정책에 대한 접근도 포함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 내에서 벌어지는 경쟁이다. 즉, 이민노동자가 증가함으로써 노동시장 내의 경쟁압력이 높아지고 직업 안정성을 위협받는 사람들은 이민자에 대한 편견이 강화될 것이다. 주로 교육 수준이 낮고 숙련도가 낮은 직업 종사자들일수록 이민자를 부정적으로 배타시하는 인식이 강해진다고 보는 것이다. 국가별 비교 연구를 보면, 특히 유럽에서는 이민자 집단의 규모가 크고 또 경제성장률이나 실업률 등 경제지표가 악화된 국가에서 이민자에 대한 거리감이나 편견이 더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Quillian 1995).

그런데 위협 인식을 강조하는 입장은 단순한 현실갈등이론과 일정한 차이가 있다. 현실에서 발생하는 집단 간 갈등의 객관적 차원뿐 아니라 그러한 위협이 ‘인지(perception)’되는 주관적 차원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타인 및 외집단을 경계하는 사람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은 현실의 경쟁조건이 악화되면 더 확산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정한 사회심리적 기제가 작용한다. 경기 불황이나 일자리 부족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삶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자신이 소속된 내집단(ingroup)을 동일시하는 태도와 더불어 외집단(outgroup)을 배척하는 이른바 ‘역-동일시(contra-identification)’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쉬퍼스(Scheepers 2002)는 이러한 차원에서 현실갈등이론과 사회정체성이론이 서로 대립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민자와 소수자에 관용적인 정책이 시민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있다(Schleuter et. al 2013). 정부가 이민자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 포용적 정책을 취한다면, 다수 시민들은 한편으로 이민자가 자신의 몫을 빼앗아 갈 것이라는 경계심을 갖게 될 수도 있다. 반면 이러한 정책이 사회적 규범으로 널리 수용된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즉, 포용적 소수자정책은 인권, 문화다양성 존중 등 보편적 가치를 확산시키며 대다수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제도화된 규범으로 정착될 수 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등이 제도화되면 이러한 규범을 내면화시키는 사회화의 효과가 더 커질 것이다.

그런데 다양한 인종·민족 집단이 함께 살아가는 이민 국가를 배경으로 하는 분석 모델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 주민들의 태도를 설명하는데 과연 적합할까? 이에 대해서는 보다 정교한 이론적·경험적 검토가 필요하다.<sup>3)</sup> 사실 남한 전체 인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남한 주민과 경쟁하고 있다는 인식은 그다지 높지 않다. 앞서 기존 연구 검토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다수 남한 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으로 인한 경쟁 압력을 그다지 실감하지 못하

3) 한국인들의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태도를 분석할 때 위협 인식을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는 연구들이 있다(조정인 2011; 장임숙 2010).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서 위협 인식을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고 있다. 현실갈등이론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하겠다.

이민자나 소수자 집단이 가시적인 현실적 위협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다수 주민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무력감이 커진다면 위협 인식이 상승한다는 주장도 있다. 집단 간 경쟁과는 다른 차원에서 구조화된 ‘무력감의 강화’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Ross et. al. 2001).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개 무력감을 느끼기 쉽고, 따라서 자신이 외부의 위협에 매우 취약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무력감과 위협 인식은 소수자나 외부인을 더욱 불신하고 배척하는 태도를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나 소속된 공동체에 대한 불신이 높고 신뢰가 낮을수록, 무력감은 구조적으로 더욱 강화된다.

이러한 연구들은 인지된 위협이 단지 외집단의 직접적 위협뿐 아니라 다른 사회적·규범적 요인에 의해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리감을 분석할 때에도 남한 사회의 사회경제적 환경이나 노동시장의 경쟁 악화 등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인지된 위협의 다층적 차원들을 입체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 3. 분석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 위협 인식의 네 가지 차원

위협 인식은 주로 이민자에 대한 주류 시민들의 태도를 분석할 때 널리 사용되는 개념이다. 쉬퍼스 등은 유럽인들의 종족적 배제주의(ethnic exclusionism), 즉 타민족·타인종 출신의 이민자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분석하면서 위협 인식을 개인적 위협(personal threat)과 집합적 위협(collective threat)으로 구분하였다(Scheepers et. al. 2002). 개인적 위협 인식은 자신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또 예전보다 지위가 하락했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것이다. 집합적 위협은 이와 조금 다른데, 가령 이민자나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외집단이 늘어나면 전체 사회의 경쟁이 악화되고 기존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태도와 연관된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일자리 잠식이나 임금 하락에 대한 우려, 이주민 정책 지원을 위한 재

정 부담에 반대하는 목소리로 표출된다. ‘나’와 ‘타자(외집단)’의 위치와 이해관계를 상호 대립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역-동일시의 기제가 그 이면에서 작용한다.

한편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사회적 환경 또는 맥락(social context)이 어느 정도 안전한지 혹은 위협적인지에 대한 인식도 중요한 요인이다 (Scheepers et. al. 2002). 현재 남한 사회의 양극화나 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느낀다면 사회환경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이러한 태도는 앞서 언급한 구조화된 무력감 또는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구조화된 무력감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통일에 대한 전망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통일에 관심이 많고 통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관대한 태도를 취할 것이다. 그런데 통일 이후에 사회갈등과 사회문제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사회적 환경에 위협 인지와 더불어 앞으로 통일 이후 제기될 사회적 위협에 대한 인식도 함께 분석한다.

종합하면, 이 연구에서는 위협 인식을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하며, 위협 인식이라는 개념을 통해 정치·군사적인 요인과 구별되는 사회적 차원의 갈등과 위협을 다루고자 한다. 첫 번째, 개인적 위협은 주로 개인의 경제적 상황 및 생활 조건의 악화를 어느 정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가를 다룬다. 두 번째는 외집단의 집합적 위협,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집단에 대해 느끼는 위협이다. 세 번째는 현재 사회환경의 위협, 즉 남한 사회의 경쟁 조건이나 사회적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통일 이후 사회환경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다. 남북한이 통일된 이후 사회적 경쟁이나 갈등이 더 완화될 것인지 혹은 더 악화될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위협 인식을 체계적으로 개념화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를 기존 연구와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가설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과 거리를 두려는 부정적 태도는 남한 주민들의 위

협 인식이 높을수록 더 강화될 것이다. 위협 인식은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었던 경제적 요인이나 정체성 요인과는 다른 차원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이탈주민은 같은 민족 출신이고 또 실제 노동시장의 경쟁을 악화시킬 만큼 집단 규모가 크지 않다는 면에서, 경제적 요인이나 정체성 요인이 이들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직접적으로 확산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불안정 및 사회적 경쟁 심화를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인다면,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이질적 타자를 배타시하려는 정서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위협 인식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들은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태도에 각각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으로 인한 집합적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일수록 이들에 대한 거리감도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개인적 위협, 남한의 사회환경이 제기하는 위협, 그리고 통일 이후의 위협에 대한 우려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강화하는 데 얼마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대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태도에는 다른 요소와 더불어 위협 인식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20대는 성인기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생애주기의 특성에 따라 개인적 위협이나 사회적 경쟁 조건의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위협 인식은 청년층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리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 III. 연구방법론 및 자료

#### 1. 자료

이 연구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에서 실시한 통일의식조사(2007-2015년)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조사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2005년 인구총조사의 전국 인구 현황(2005-2010년)을 기준으로 한 다단계층화무작위추

출범(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을 이용하여, 2007년 이후에는 매년 5월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지역별·성별·연령별 할당을 배분한 후 해당층 내에 존재하는 전화번호 시트를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식으로 표본을 구성하였다. 각 연도별 표본 수는 약 1,200명이며, 9개 연도의 총 표본은 10,817명이다.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일대일 개별 면접으로 진행되었다(박명규·이정옥 2015).

<표 1> 연도별 통일의식조사 표본

조사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표본 수	1,200	1,213	1,203	1,200	1,201	1,200	1,200	1,200	1,200

\* 박명규·이정옥(2015, 2)

## 2. 주요 변수 및 분석 방법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 주민의 태도를 보여주는 종속변인은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이다. 사회적 거리 개념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는 일정한 사회적 ‘거리’가 존재하며, 이 거리는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친밀감(intimacy)의 정도를 의미한다. 사회적 거리를 경험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로 널리 쓰이는 보가더스 척도(Borgadus scale)는 어떤 인종·민족 집단에 속하는 사람과 결혼, 친구, 이웃, 직장동료, 국민 등과 같은 관계를 맺는 것에 찬성 혹은 반대하는지는 묻는 방식을 구성된다(Parrillo & Donoghue 2005, 258; 이명진 외 2010, 68; 황정미 2015b). 사회적 거리는 외국인 이민자,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배타적 태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널리 사용된다(김상학 2004; 조동기 2010). 그런데 보가더스 척도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가장 먼 것까지 위계적인 순서가 있음을 전제하지만, 문화·역사적 배경에 따라 소속감의 위계적 순서가 달리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김석호 외 2013; 권수현·송영훈 2015). 통일의식조사에서는 보가더스 척도 문항들을 일부 수정하여 북한이탈주민과 동네이웃, 직장동료, 사업동반자, 결혼상대 등 네 가지 관계를 맺는 것을 어느 정도 꺼리는지를 측정하였다. 여기에서는 ‘전혀 꺼리

지 않는다'를 0점으로, '매우 꺼린다'를 4점으로 놓고 네 가지 관계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여 0점에서 16점에 이르는 사회적 거리 점수를 구하여 이를 종속변수로 삼았다.<sup>4)</sup>

독립변인으로 설정된 위협 인식의 네 요소를 측정하기 위해 통일의식조사의 유사한 문항들을 분석하였다. 먼저 개인적 위협은 현재 개인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문항(self-reported financial distress)으로 주로 측정하는데, 통일의식조사에서 이와 가장 가까운 문항 두 가지를 활용하였다.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4점 척도),<sup>5)</sup> 현재의 생활수준이 부모가 응답자와 같은 나이였을 때에 비해 개선 혹은 악화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5점 척도)이 그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집합적 위협은 이들이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 경쟁을 악화시키는지,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 지원에 찬성 혹은 반대하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이 두 가지 문항은 이민자가 제기하는 위협을 어느 정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가를 측정하는 요소이다(Scheepers et, al. 2002). 또한 사회환경의 위협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와 실업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응답(4점 척도)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일이 가져올 사회적 위협은 통일 이후 빈부 격차와 실업 문제가 더 악화될 것인지 혹은 개선될 것인지에 대한 응답(5점 척도)으로 측정하였다. 위협 인식 변인들은 4가지 요소에 각각 두 문항 씩 모두 8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위협의 수준이 더 높아지도록 코딩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종속변인으로 놓고, 독립변인들의 인과적 영향과 통계적 유의도를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회귀분석에서는 위협 인식과 관련된 독립 변인과 더불어 인구·사회적 변인,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을 묻는 다른 문항들도 있지만, 사회적 거리는 국내외 기존 연구에서 일정하게 검증된 개념이며 4가지 문항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지표로서의 신뢰도가 더 높다고 보았다. 사회적 거리감 척도 점수는 서울대의 통일의식조사 자료를 분석한 권수현·송영훈(2015)의 연구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단,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조사 결과를 추가하고 독립변인으로 위협 인식에 해당하는 다른 요인들을 투입하여 기존의 연구와는 독립된 분석을 실시하였음을 밝혀둔다.

5) 구체적인 질문은 “귀하는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만족하십니까?”이다. 경제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 대상의 의식조사라는 점에서, 이 질문은 국가 경제에 대한 판단보다는 현재 한국에서 생활하는 응답자 자신의 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그리고 다른 통제변인들의 영향도 함께 고찰한다. 인구·사회적 변인으로는 성별, 연령과 더불어 직업, 교육 수준, 연령대(10세 기준)를 각각 더미 변수로 전환하여 분석한다. 기존 연구가 주로 가구소득이나 주관적 계층의식을 주로 다루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 수준과 직업에 따른 태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직업과 교육 수준은 현실갈등이론에서 이민자와 같은 외집단과의 노동시장 경쟁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가장 많이 쓰이는 변인이다. 또한 교육은 직업 선택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복합적인 매개 작용을 하는데, 가령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세계관이 넓어지고 인지적 정교화의 수준이 높아지며, 타인에 대한 공감감이 증대되는 경향이 있다(Vogt 1997; Schleuter et. al. 2013, 674 재인용). 이러한 교육의 매개 효과 및 현실갈등이론을 적용한다면, 대학교 이상 고학력의 화이트칼라 종사자들은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사회적 소수 집단과의 경쟁 압력을 거의 느끼지 않으며 따라서 이들을 상대적으로 포용하는 태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사회 변인 이외에도 다문화 수용성,<sup>6)</sup> 통일에 대한 태도(통일의 필요성, 북한 정부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정치 성향(진보-보수) 등의 통제변인을 회귀분석에 포함하였다. 통제변인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 및 가치와 관련된 요인들이며, 기존 연구에서 일정한 인과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다문화 수용성이 높고 통일의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동의할수록, 그리고 진보적인 정치 성향의 소유자일수록 북한이탈주민이나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줄어들 것이다.

회귀분석은 단계별로 인구사회 변인(1단계), 인지된 위협과 관련된 독립 변인(2단계), 통제변인(3단계)을 각각 투입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고, 단계별 설명량의 변화를 계산하여 인지된 위협변인들이 종속변인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 검증한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각 연도별로 회귀분석을 실시

6) 다문화 수용성은 2012년부터 설문지에 포함되었다.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을 해치게 된다”는 두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쪽으로 코딩하였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다문화 수용성을 제외하고 회귀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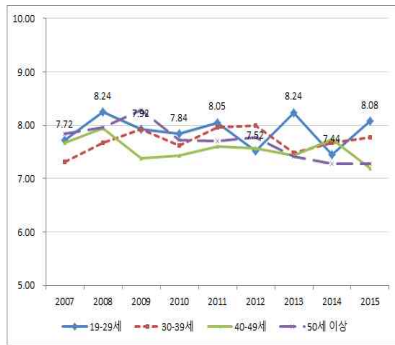
하고, 또한 20대 연령층만 따로 추출하여 각 연도별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지 고찰한다.

## IV. 분석 결과

### 1. 기술 분석: 사회적 거리와 위협 인식의 연령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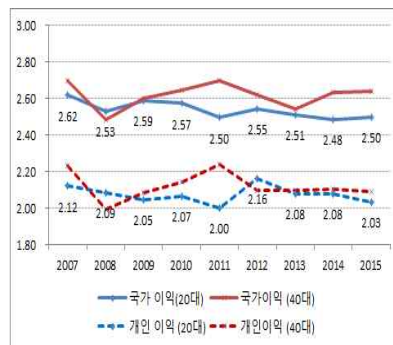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는 2007년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응답자의 연령별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 <그림 1>에서 보듯이 사회적 거리 점수는 연도별로 증가 혹은 감소하는 일관된 흐름을 보이지 않으며, 약간씩 오르내리면서 일정한 범위 안에 머물러 있다. 연령별 응답 또한 조사 시점에 따라 진폭을 보인다.<sup>7)</sup> 약간의 격차는 있지만 큰 흐름을 보면 19-29세 연령층<sup>8)</sup>의 응답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주로 40대의 응답과 평행선을 이루면서 소폭의 진동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그림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령집단별(2007-2015)



\* 단위: 0-16점, 평균값

<그림 2> 통일의 국가 이익과 개인 이익 격차(20대와 40대 비교, 2007-2015)



\* 4점 척도: 1점 전혀 이익 안 됨 - 4점 매우 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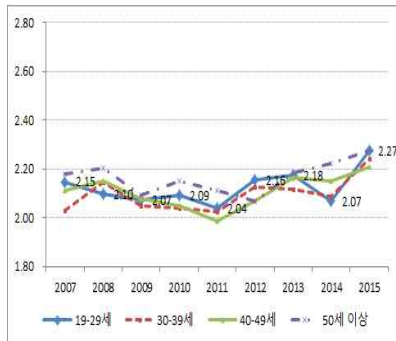
7) 본 자료는 패널조사가 아니므로, 응답자의 연령별, 성별, 지역별 구성은 유사하지만 실제 응답자는 매년 달라진다.

8) 본 조사는 유권자 기준으로 19세도 응답자에 포함하였으며, 19-29세 응답자를 한 집단으로 묶었다. 19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편의상 '20대'라고 표기하겠다.

그러나 2012년 이후에는 20대 응답이 다른 연령층과는 구분되는 흐름을 보이며 특히 2013년, 2015년 조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리감이 가장 먼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0대 연령층이 중장년층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에게 보다 부정적이고 소원한 태도를 보이는 현상은 특히 2015년 조사에서 확연하게 나타난다(황정미 2015a).

앞에서 언급했던 통일의 국가 이익과 개인 이익에 대한 의견의 격차가 연령별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그림 2>에서 보듯이 20대와 40대 연령층의 응답을 보면 전체적으로 2점과 3점 사이, 즉 ‘그다지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데에 근접하는 태도를 보인다. 통일에서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이익에 대해 20대는 40대보다 더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통일의 개인 편익에 대해서는 20대와 40대의 의견 차이가 2011년에 상당히 벌어졌지만 이후 비슷한 흐름으로 수렴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국가 편익과 개인 편익이 일치하지 않고 상당히 격차가 있다는 인식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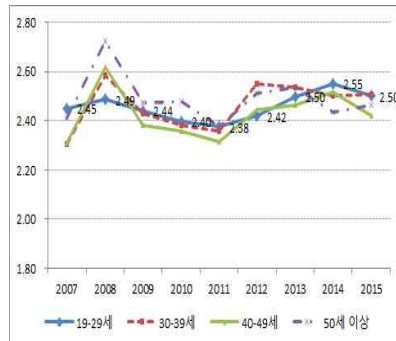
<그림 3> “탈북자 때문에 취업 어려움”



\* 4점 척도:

1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 - 4점 매우 동의

<그림 4> “탈북자 더 많이 지원하는데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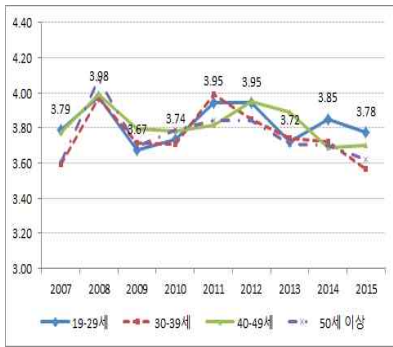
\* 4점 척도:

1점 전혀 동의하지 않음 - 4점 매우 동의

위협 인식에서도 연령별 차이가 있는지, 북한이탈주민의 집합적 위협과 통일 이후의 사회적 위협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그림 3>과 <그림 4>에 나타나 있듯이, 전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경쟁 약화에 대한 우려, 탈북자 지원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은 그다지 높지 않다.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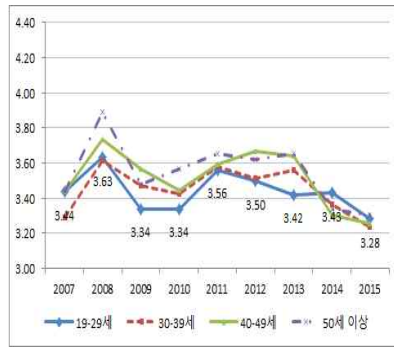
상대적으로 정책 지원에 대한 반대가 좀 더 높은 편이다. 그런데 최근 3년간 변화 추이를 보면 취업난 악화에 대한 우려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책 지원에 대한 반대는 정체 내지 약간 감소하는 흐름을 보인다. 특히 2015년 조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취업난을 증가시킬 것이란 우려가 전체적으로 높아졌고, 그중 20대와 30대의 응답이 가파른 상승선을 보이고 있다. 젊은 응답자들이 노동시장의 경쟁과 실업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림 5> 통일 이후의 사회문제: 빈부격차



\* 5점 척도 평균값: 1점 크게 개선될 것이다 - 5점 크게 악화될 것이다

<그림 6> 통일 이후의 사회 문제: 실업 문제



\* 5점 척도 평균값: 1점 크게 개선될 것이다 - 5점 크게 악화될 것이다

통일 이후의 사회적 위협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림 5> <그림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통일 이후의 실업 문제보다는 빈부격차 악화를 좀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전체적으로 통일 이후 남한 사회가 현재 안고 있는 사회 문제인 빈부격차나 실업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가 나타나지는 않으며, 지금과 큰 차이가 없거나 약간 악화될 것이라는 견해로 수렴되고 있다. 2014년부터는 통일 이후의 사회적 위협에 대해 20대 응답자가 다른 연령층보다 좀 더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점도 눈에 띈다.

9) 4점 척도에서 평균값이 2점과 3점 사이에 있는데, 이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인해 제기되는 사회적 위협을 약간 우려하는 수준의 태도라고 볼 수 있다.

## 2. 회귀분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연도별로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sup>10)</sup> 분석 결과 나타난 인구·사회적 변인, 위협 인식(독립변인), 그리고 기타 통제변인의 영향을 각각 살펴보고, 이로부터 어떤 이론적 함의가 도출되는지 고찰한다.

### (1) 교육·직업 변인의 영향과 현실갈등이론

인구·사회적 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성별은 비교적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북한이탈주민에게 거리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이 나타난다. 연령은 뚜렷한 영향이 없었지만, 10세 간격의 연령대를 더미변수로 만들어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기준인 20대에 비해 30대(2008년, 2013년)와 40대(2015년) 응답자가 북한이탈주민을 좀 더 친근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1)</sup>

교육 수준은 고졸 학력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2012년 조사에서 중졸 이하 응답자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더 증가되는 영향이 나타날 뿐, 거의 의미 있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대학 재학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북한이탈주민을 좀 더 친근하게 느끼고 포용하는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으면 이주민이나 소수자에 대한 공감과 관용성도 더 높아지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는 상반된 것이다. 직업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다. 화이트칼라 종사자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농업과 자영업 종사자, 그리고 학생 및 무직 층에서 오히려 거리감이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고학력자와 화이트칼라들은 고졸 이하, 농업·자영업 종사자에 비해 오히

10) 연도별 분석과 별도로 9개 년도의 자료를 모두 통합한 회귀분석(pooled cross-sectional analysis)을 실시하였으나, 연도 더미변수의 유의미한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독립변인들의 영향은 통합분석과 연도별 회귀분석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지면의 한계로 본 논문에서는 통합 회귀분석 결과는 생략하고, 연도별 회귀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11) 단, 2012년 조사에서만 예외적으로 20대가 다른 연령층보다 사회적 거리감이 더 낮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려 북한이탈주민들을 더 멀게 느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이룬바 현실갈등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남한 주민들이 북한 이탈주민을 바라보는 인식은 현실적 갈등이나 노동시장에서의 경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 (2) 위협 인식

위협 인식의 네 가지 요인 중 먼저 개인적 위협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나빠진다고 생각하더라도 이것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사회환경의 위협은 주목할 만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를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탈북자와 더 거리를 두려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은 일부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만 방향성은 일관되지 않다. 2007년 조사에서는 실업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리감도 더 멀어졌지만, 2010년에는 반대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 지속적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의 집합적 위협은 지속적이고 일관된 영향을 나타낸다. 탈북자를 위한 정책 지원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또 이들이 노동시장의 취업경쟁을 더 악화시킨다고 생각한다면, 탈북자에 대한 거리감도 더 벌어지는 경향이 있다. 통일 후 사회적 위협에 대한 우려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단, 2015년 조사에서만 통일 후 실업 문제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리감을 더 확대하는 효과가 관찰되었다.

전체적인 회귀 모델의 설명량( $R^2$ )과 단계별 변화량을 살펴보면, 위협 인식이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연도별 회귀분석에서 위협 인식변인의 설명량은 0.83(8.3%)에서 0.132(13.2%) 사이에 있으며 전 연도에서 일관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위협 인식의 네 가지 요인 중 북한이탈주민의 집합적 위협 인지가 가장 통계적 유의도가 높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 예상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남한

사회의 위협요인, 특히 남한 사회의 빈부격차를 심각한 문제로 여기는 사람들이 사회적 소수자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 (3) 통일 인식과 다문화 수용성

통제변인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다. 통일의 필요성에 동의할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리감은 줄어들며, 결과적으로 통일을 보는 긍정적 시각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통일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상대로 북한 정권을 신뢰한다면, 부분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리가 축소되는 결과도 나타났다.

다문화 수용성이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리감이 줄어드는 효과도 나타났다(2012년, 2015년). 이는 기존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며,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인종·민족 배경의 외국인들을 국민으로 수용하는 태도는 북한이탈주민을 좀 더 친근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정치적 이념 성향의 영향을 보면,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탈북자를 좀 더 소원하게 느끼는 경향이 2013년 이후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주지하다시피 보수정당의 집권 이후 대북 교류가 축소되고 남·북한 간 긴장국면이 지속되었으며, 이러한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보수적 정치 성향의 사람들이 탈북자에 대해서도 부정적 태도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 성향이 진보적인 사람은 이민자와 사회적 소수자에게 보다 관용적이라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처럼 통제변인들은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지만, 전체적인 회귀 모델의 설명력을 볼 때 위협 인식 변인에 비해 그 효과는 확연하게 낮다. 즉 이 회귀분석 모델에서는 위협 인식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리감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임이 입증되었다.

<표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도별 회귀분석(2007-2015년)

(종속변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리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 구 · 사 회 적 변 인	성별	.785***	.893***	.672**	.312	.405	.458*	.377	.731*	-.086
	연령	-.015	.017	-.051	.013	-.010	-.124***	.017	-.022	.023
	중졸 이하 (d)	.020	-.158	.343	.400	-.056	.828*	-.433	-.339	.205
	대재 이상 (d)	-.028	.442	.040	-.161	.353	-.015	.202	.255	-.234
	농업(d)	-1.016	1.513*	.423	-.104	-1.864*	-.427	1.000	.679	-.568
	자영업 (d)	-.300	.186	.559	-.721*	-.602*	-.215	-.076	-.546	-.782*
	블루칼라 (d)	-.149	-.254	-.121	-.517	.391	.190	.142	-.233	-.343
	전업주부 (d)	-.024	.261	-.126	-.469	.618	-.054	.380	-.546	-.693
	학생/무직 (d)	.585	-.648	-.820*	.006	-.544	-.507	.179	-.124	-.656
	30-39세 (d)	.425	-1.220**	.241	-.050	-.067	1.706***	-.901*	.723	-.638
40-49세 (d)	.898	-1.244	.161	-.222	-.029	2.608***	-1.034	1.128	-1.132*	
50세 이상 (d)	1.128	-1.341	1.414	-.541	.158	3.999***	-1.337	1.104	-1.441	
독 립 변 인	경제 상황 만족	-.167	-.225	-.003	-.145	.051	.096	-.135	-.084	-.151
	생활 수준 악화	.018	.116	-.014	-.007	-.029	.021	-.197	.031	.184
	빈부격차 실업 문제	.234 .439*	.074 .198	-.183 -.326	.452** -.377*	.374* .003	.628*** -.263	.342 .244	-.017 .177	.423* .308
	탈북자 지원 반대	.921***	.986***	.953***	1.079***	1.274***	.566***	1.234***	.772***	.519***
	탈북자 취업 경쟁	.487***	.627***	.601***	1.054***	.755***	.869***	.429**	.559***	.655***
	통일 후 빈부격차 통일 후 실업 문제	.113 -.074	.077 .203	-.036 .178	-.080 .153	-.042 .135	.075 -.079	.032 .162	.031 -.026	.158 .180*
통 제 변 인	다문화 (1)						-.175	-.215	-.162	-.224*
	다문화 (2)						-.546***	-.011	.035	-.195
	통일 필요성	-.438***	-.306**	-.187*	-.445***	-.360***	-.102	-.346***	-.182*	-.322***
	북한 정권 신뢰도	-.082	-.075	-.460**	-.102	-.053	-.448**	-.013	-.250	.179
	정치 성향 (보수)	.125	.154	.121	.137	.180	-.082	.394**	-.068	.243*
상수	3.338*	2.865	8.319***	4.231**	2.467	9.403***	2.333	5.741***	3.090*	
N	1152	1169	1173	1185	1169	1176	1176	1166	1181	
R2	.148	.141	.153	.180	.200	.143	.176	.092	.133	
F	8.539***	8.142***	9.010***	11.097***	12.463***	7.688***	9.830***	4.597***	7.067***	
R2 변량 <sup>12)</sup>	.083	.086	.097	.132	.126	.072	.125	.061	.083	

\* \*p<0.05, \*\*p<0.01, \*\*\*p<0.001

12) 인구·사회적 변인(1단계)에 독립변인(인지된 위협)을 투입(2단계)하였을 때 증가

### 3. 19-29세 청년층의 태도와 위협 인식

연도별 회귀분석에서 연령집단별 태도의 차이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어느 연령대에 속하는가에 따라 거리감이 달라지는 일관된 효과가 뚜렷하게 확인된 것은 아니다. 청년층의 태도에 위협 인식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19-29세 연령층만을 대상으로 연도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sup>13)</sup>

<표 3>에서 보듯이 회귀분석 모델은 2012년을 제외하면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별 설명량의 변화( $R^2$  변량)에서 보듯이 19-29세에서 위협 인식이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 가령 2013년의 경우 이 회귀 모델의 전체 설명량 24.8% 중에서 19.2%가 위협 인식 변인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전체 연령층에 대한 분석과 비교해 볼 때 20대에서 위협 인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 또한 위협 인식의 네 가지 요소 중 북한이탈주민의 집합적 위협이 통계적 유의도가 가장 높은 요인이라는 결과도 앞서의 전체 회귀분석과 같다.

그런데 눈에 띄는 차이점은, 남한 사회의 위협 요인 중 앞의 분석에서는 빈부격차의 심각성 인식이 유의미한 변인이었던 반면, 청년층 사이에서는 실업 문제를 심각하게 느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리감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 문제에 대한 우려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관찰되는데, 이는 청년층이 그만큼 실업 문제의 심각성과 압박감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청년층의 취업 불안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강화하는 경향으로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2015년 조사에서는 통일 후 실업 문제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인식이 북한이탈주민을 더 멀게 느끼도록 만드는 경향이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위협 인식이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줄어드는 경향은 앞의 분석과 비슷하지

한  $R^2$ 값의 변화량을 말한다. 전체 회귀분석 모델에서 ‘인지된 위협(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의 증감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이다.

13) 회귀분석의 틀은 기본적으로 앞의 분석과 같지만, 각 연도별로 분석 대상 집단의 수가 축소되고 같은 또 연령대의 동질적인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 수준 및 직업 변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만, 청년층 응답자들은 무엇보다도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협 요인의 영향 을 더 많이 받는 점이 경험적 분석을 통해 나타난다.

통제변인의 경우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할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 리감이 감소하는 경향은 앞에서 살펴본 전체 회귀분석 결과와 유사하지 만, 통계적 유의도가 한층 약화된다. 그 외 다른 통제변인들, 즉 북한 정권 신뢰도, 다문화 수용성, 정치 성향 등은 청년층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다. 청년층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에는 다른 요인보다도 위협 인식 이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규범이나 문화적 요인에 의해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거리감이 줄어드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난다.

**<표 3> 회귀분석: 19-29세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2007-2015년)**

(종속변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리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구 변인										
성별	.233	.734	.326	.027	.271	.681	<b>.799*</b>	.782	.233	
연령	-.095	<b>.129*</b>	-.010	.048	.043	-.069	.051	-.019	-.014	
독립 변인	경제 상황 만족	-.194	-.165	-.171	-.048	-.010	.300	-.460	<b>-.975**</b>	-.401
	생활 수준 개선/악화	.018	.103	-.107	.293	-.049	-.010	-.155	-.278	.110
	빈부격차 실업 문제	.372	.617	.022	.018	-.020	.328	.348	.579	.024
	탈북자 지원 반대	<b>.711*</b>	<b>1.176***</b>	<b>1.004**</b>	<b>.715**</b>	<b>1.618***</b>	.110	<b>1.283***</b>	.439	.020
	탈북자 취업 경쟁	<b>.642*</b>	.419	.535	<b>1.023***</b>	<b>.656*</b>	.472	<b>.598*</b>	.209	<b>.917**</b>
	통일 후 빈부격차	.133	-.029	.208	-.349	-.256	.377	.368	.262	.051
	통일 후 실업 문제	-.086	.095	-.018	-.037	.194	-.245	.097	-.122	<b>.523*</b>
통제 변인	다문화 (1)						-.306	-.101	-.440	-.519
	다문화 (2)						-.363	-.126	.101	.039
	통일 필요성	<b>-.610**</b>	<b>-.393*</b>	<b>-.419*</b>	-.325	<b>-.380*</b>	-.365	<b>-.470*</b>	<b>-.416*</b>	-.214
	북한 정권 신뢰도	-.063	-.058	-.084	-.279	-.450	-.146	-.273	-.524	.208
	정치 성향 (보수)	-.106	-.015	.363	-.295	.015	.211	.005	-.150	.210
상수	7.864**	.741	6.026*	6.298*	3.045	8.875**	1.129	8.323**	3.574	
N	286	258	288	294	252	244	240	234	222	
R <sup>2</sup>	.126	.163	.134	.118	.261	.081	.248	.164	.141	
F	3.019***	3.664***	3.252***	2.870**	6.459***	1.344	4.934***	2.853***	2.249**	
R <sup>2</sup> 변량	.074	.111	.105	.093	.220	.036	.192	.106	.115	

\* \*p<0.05, \*\*p<0.01, \*\*\*p<0.001

## V. 결론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남한 사람들의 태도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지난 9년간의 조사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경험적으로 고찰하였다. 2007년부터 201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남한 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은 약간의 진폭이 있지만 비교적 일정한 범위 내에 머물러 있다. 2007년 이후 남북 간 교류나 대북정책, 군사적 긴장 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다는 점은 여러 가지 함의를 갖는다. 북한 및 북한 주민과 관련된 문제들은 주로 이념과 정치 담론, 그리고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경향이 있고, 부지불식간에 정치적 해석이 과잉되는 반면 사회적 차원에 대한 논의는 간과된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서 남한 주민들이 체감하는 사회적 요인,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위협 인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최근 들어, 특히 2013년과 2015년에는 19-29세 연령층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리감이 다른 연령층보다 상당히 높아지는 현상이 관찰된다. 지난 9년간의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연령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고착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2013년 이후 연령별 태도가 분화되는 흐름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종속변인, 위협 인식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연구 가설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남한 주민들이 인식하는 사회적 위협의 수준이 높을수록 더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응답자의 교육 수준이나 직업 변인들은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다. 즉 북한이탈주민과 노동시장에서 경쟁관계에 놓이게 될 저학력, 저숙련 직업 종사자들이 이들을 더 멀리하고 배제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이민자에 대해서는 학력이 높고 화이트칼라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일수록 더 포용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황정미 외 2007; 안상수 외 2012). 그러나 이번 분석에서는 고학력 화이트칼라 응답자가 북한이탈주민을 더 친근하게 수용하는 태도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

과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이 외국인 이민자를 바라보는 태도와 어느 정도 결을 달리하며 분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위협 인식을 다시 네 가지 요소, 즉 개인적 위협과 집합적 위협, 남한의 사회환경적 위협과 통일 이후의 사회적 위협으로 구분하였는데, 각각의 요소가 종속변인인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지 않았다. 가장 지속적이고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은 북한이탈주민으로 인한 집합적 위협이다. 즉,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정책에 반대하고 또 이들로 인해 취업난이 더 심해진다고 생각할수록, 이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더 확대되었다. 더욱 주목할 것은 남한의 사회환경 위협이 미치는 효과이다. 남한 사회의 빈부격차나 실업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할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줄어들었다. 사회적 격차가 벌어지고 계층상승의 기회가 축소된다는 인식, 즉 구조화된 무력감이 커질수록 외집단을 배제하는 태도가 더 만연하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달리 표현하면, 사회의 공정한 질서와 평등한 기회에 대한 신뢰가 높고 또 실업에 대한 불안이 적은 사회에서 소수자 및 타자화된 집단들을 우리 내부로 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셋째, 19-29세 연령층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에는 위협 인식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청년층의 지난 9년간 응답 경향을 분석해 보면, 사회적 위협 중에서도 특히 실업 문제에 대한 우려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리감을 더 확대시키는 경향이 2013년 이후에 뚜렷하게 나타난다. 구조화된 무력감이 청년들로 하여금 자신과는 다르다고 느끼는 외집단, 즉 북한이탈주민이나 소수자와의 공존과 관용을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 반면 통일 이후에 빈부격차나 실업과 같은 사회 문제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아직 높지 않은 점은 긍정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또 통일 후 위협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을 더 멀리하는 효과는 부분적으로만 나타났다.

넷째, 통제변인의 효과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서 규범과 문화의 중요성을 환기시킨다. 다문화 수용성이 높고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할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리감은 다소 줄어들었다. 북한 정부를 신뢰할 만한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할수록 마찬가지로 결과가 나타난다. 다문화 수

용성은 외국인 이민자의 문화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일종의 보편적 가치이며, 소수자를 존중하는 인권의식의 토대가 된다.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에 동반하는 사회변동을 주로 집단 간 갈등이나 이익의 상충이라는 차원에서만 인식한다면, 사회적 위협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것이다. 반면 문화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인식과 보편적 인권의식이 확산된다면, 북한이탈주민을 위협적 집단으로 보는 편견을 상당히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20대 청년층의 태도에 규범 및 문화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은 기성세대에 비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에 대한 연도별 회귀분석에서는 다문화 수용성이 높을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젊은 청년들이 문화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규범 및 인권의 가치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대되고 나아가 제도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청년을 위한 통일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논의들은 이번 조사 결과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를 위한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현실적 위협뿐 아니라 ‘인지된’ 위협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북한이탈주민의 수용뿐 아니라 통일 전망 및 준비 과정에서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의미가 있다. 남한 주민들이 빈부격차나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낀다면,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으로 인해 정책 비용이나 취업 경쟁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한다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더 나아가 집단 간 경쟁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 자신의 처지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무력감이 구조화되고 강화될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 더 나아가 통일에 대한 관심을 축소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위협 인식을 주로 다루었으며 구조화된 무력감이 강화되는 기제를 구체적, 경험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위협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신뢰, 소속감, 정체성 등의 요인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구조화된 무력감이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는 사회통합, 더 나아가 통일에

대한 관심과 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계적으로 밝히는 것은 추후 연구의 과제라고 하겠다.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강원택 (2006).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대한민국 민족주의.”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동아시아연구원, pp. 15-38.
- \_\_\_\_\_ (2011). “한국 사회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변화.”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동아시아연구원·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pp. 11-31.
- 권수현 (201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 국민의 태도.” 『한국정치연구』. 제20집. 제2호, pp. 129-153.
- 권수현·송영훈 (2015). “피를 나눈 형제, 이웃보다 못한 친척?: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 주민의 사회적 거리감과 결정요인, 2007-2014.” 『오토피아』. 제30권. 제2호, pp. 123-159.
- 김병조 (2015). “통일 인식의 세대별 격차와 세대내 분화.” 『통일의식의 분화와 역동성: 2015 통일의식조사 자료집』.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김상학 (2004).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제5집. 제1호, pp. 169-206.
- 김석호 외 (2013). “지식공간이론을 이용한 사회적 거리감 척도의 한국 사회에서의 적용 가능성.” 『한국연구학』. 제36권. 제1호, pp. 1-20.
- 박명규·이정옥 (2015). 『통일의식조사 2007-2015 코드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박명규 외 (2016). 『2015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손애리·이내영 (2012). “탈북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연구: 국가정체성과 다문화 수용성을 중심으로.” 『아태연구』. 제19권. 3호, pp. 5-34.
- 윤인진 (2011). “민족에서 국민으로: 재외동포,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식 변화.” 강원택·이내영 편.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동아시아연구원·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pp. 165-187.
- 이내영 (2006). “한국인의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과 국가정체성.” 강원택 편.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동아시아연구원, pp. 185-212.
- \_\_\_\_\_ (2011).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의 변화.” 강원택·이내영 편.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동아시아연구원·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pp. 33-57.
- 이명진·최유정·최선희 (2010). “다문화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 『조사연구』. 제11권. 제1호, pp. 63-85.
- 장임숙 (2010). “다문화적 인식이 정책 태도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 로.” 『한국행정논집』, 제22권, 제1호, pp. 247-270.
- 조동기 (2010).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와 시민권에 대한 태도.” 『한국인구학』, 제33집, 제3호, pp. 53-73.
- 조정인 (2010). “누가 왜 여성결혼이민자들과 생산가능직 근로자들의 유입 증가를 반대하는가: 문화적 위협 변인과 경제적 위협변인의 영향력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5권, 제2호, pp. 281-305.
- 황정미 (2015a). “다문화 시대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과 사회통합.” 『통일의식의 분화와 역동성: 2015 통일의식조사 자료집』,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_\_\_\_\_ (2015b). “동아시아 유학생의 상호 인식-사회적 거리감과 국가정체성.” 『담론 201』, 제18권, 제4호, pp. 95-125.
- Lee, Chulwoo (2012). “How can you say you're Korean? Law, governmentality and national membership in South Korea.” *Citizenship Studies*. Vol. 16. No. 1, pp. 85-102.
- Parrillo, V. N. and D. Donoghue (2005). “Updating the Bogardus Social Distance Studies: a New National Survey.” *The Social Science Journal*. Vol. 42, pp. 257-271.
- Polavieja, Javier G. (2016). “Labour-Market competition, recession and anti-immigrant sentiments in Europe: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drivers of competitive threat.” *Socio-Economic Review*. February, pp. 1-23.
- Quillian, Lincoln (1995). “Prejudice as a Response to perceived group threat: population composition and anti-immigrant and racial prejudice in Europ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0. August, pp. 586-611.
- Ross, Catherine E., J. Mirowsky and S. Pribesh (2001). “Powerlessness and the Amplification of Threat: Neighborhood Disadvantage, Disorder and Mistrus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6. No. 4, pp. 568-591.
- Scheepers, P., M. Gijsberts and Marcel Coenders (2002). “Ethnic Exclusionism in European Countries: Public Opposition to Civil Rights for Legal Migrants as a Response to Perceived Ethnic Threat.”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Vol. 18 No. 1, pp. 17-34.
- Schlueter, Elmar, B. Meuleman and E. Davidov (2013). “Immigrant Integration policies and perceived group threat: A multilevel study of 27 Western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Social Science Research*. Vol. 42, pp. 670-682.
- Vogt, P. W. (1997). *Tolerance and Education: Learning to Live with Diversity*

*and Difference*. Thousand Oaks, CA: Sage.

## 2. 기타

- 박종철 외 (2015). 『2015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인식, 요인, 범주, 유형』. 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 안상수 외 (2012).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 황정미 외 (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Coenders, Marcel, M. Lubbers and P. Scheepers (2003). *Majority populations' attitudes towards migrants and minorities: Report for the European Monitoring Centre on Racism and Xenophobia*. Wien: EUMC.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40>. (2016년 4월 29일 검색)
- \_\_\_\_\_.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3099>. (2016년 4월 29일 검색)

| 논문투고일 : 2016년 05월 02일 |

| 논문심사일 : 2016년 05월 16일 |

| 게재확정일 : 2016년 06월 10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3 No. 2 (2016)

## **Perceived Threats and South Korean's Attitude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Hwang, Jung-Mee**

(Asiatic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This paper analyses South Korean's attitude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perceived threats'. Based on survey data sets collected from 2007 to 2015, this research organizes several regression model to investigate whether perceived threats of South Korean respondents intensify their exclusive attitude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Now there are almost 29,000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South Korea. They have multiple and often contradictory positions in South Korean society. On the one hand, they are legal citizens and the same blood brothers, but on the other hand, they are refugees or migrants who have to adapt to a new host society.

This research suggests that prejudice against minority groups like North Korean defector is not only reinforced by explicit political and economic factors such as increased labor market competition and conflicts around additional policy costs to support minorities. It is also important to examine that respondent's perception of social threats, sense of insecurity, concerns about unemployment and unstable future may provoke mechanisms of contra-identification to put minority groups out of majority's boundary of community.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the scale of social distance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inclines to extend when respondents' level of

perceived threats increases. However, respondent's occupation and education background show no significant impact in our regression model. This means that exclusive attitudes toward minorities tend to be reinforced if ordinary people are more worried about instability and insecurity in their everyday lives. It is also found that the effect of perceived threat is more significant among young respondents in their twenties. Young people who are more concerned about unemployment crisis, especially since 2013 survey, incline to have negative attitudes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This result implies that competitive social conditions in South Korea may increase young people's perceptions of powerlessness which in turn amplify exclusive attitude toward minorities and out-groups such as North Korean defectors. It also supports for the importance of policy measures including education programs to enhance the value of multicultural coexistence among young generation and also social inclus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 Key words: North Korean Defectors, Social Distance, Perceived Threat, Social Inclusion, Recognition of Korean Reunification